



駐中 한국기업 구인구직 선호도 조사

2012. 1

한국무역협회
상해지부

요 약

【조사 개요】

- 구인난을 겪고 있는 중국진출 우리 기업의 인력 채용 지원 방안을 찾아 보기 위해 “2011 주중 한국기업 채용박람회” 참가 기업 및 구직자를 대상으로 ‘한국기업 선호도 설문조사’ 실시
- ⇒ 우수 인재의 원활한 확보를 위한 현지 인력수급 지원 강화와 기회 제공

【주요 내용】

■ 채용 및 구직 희망 시기

- 기업, 구직자 모두 1/4분기가 가장 많음
 - 기업은 새해 업무추진과 춘절 이후의 이직 인력 대체를 위해 1/4분기 채용 수요가 가장 많음 : 1/4분기(36.5%), 2/4분기(19.2%) 순
- 구직자도 춘절 이후의 이직 희망과 졸업시즌 등으로 1/4분기가 최대 : 1/4분기(36.8%), 4/4분기(24.3%), 2/4분기(23.1%) 순

■ 채용 인원 및 구직 희망 기업 선호도

- 기업은 한국인이나 중국 동포 보다는 중국인 채용 우선시
 - 응답비중 : 중국인(68.5%), 중국 동포(17.7%), 한국인(13.8%)
- 구직자는 중견기업과 대기업 취업을 선호
 - 응답비중 : 중견기업(32.1%), 대기업(27.9%), 중소기업(14.7%) 순

■ 기타 사항

- 취업희망 직종 및 분야
 - 직종 : 무역/유통(36.5%), 서비스업(22.5%), 운송/물류(10.3%) 순
 - 분야 : 마케팅/영업직(35.7%), 관리직(32.5%), 엔지니어/기술직(8.8%)
- 구직자 경쟁력 요소
 - 응답결과 : 원활한 의사소통 42.7%, 통/번역 17.5%, 한국어 문서작성 14.9%, PC조작 14.6%, 기타 10.3%

1. 조사 개요

- 조사기간 : 2011.11.19 ~ 11 28(1주), 2012.1.2 ~ 2012.1.12(2주)
- 조사방법 : 설문조사 배포/회수 및 분석
- 조사대상 : 2011 주중한국기업 채용박람회 참가기업/구직자
 - 참가기업 : 81개사 배포, 52개사 응답(회수율 : 64.1%)
 - 구 직 자 : 350명 배포, 245명 응답(회수율 : 70.0%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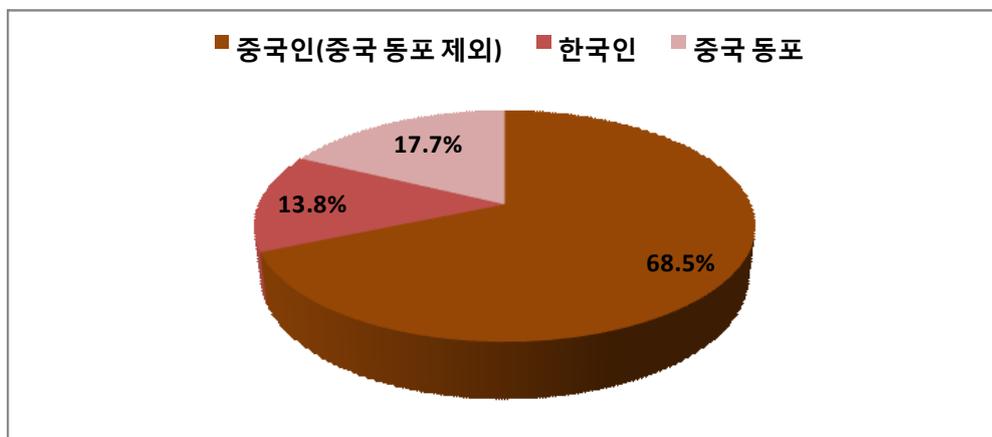
2. 조사 결과

【참가기업】

1 면접(상담)한 구직자 및 채용(계획) 구직자 수

- 채용박람회에 참가한 기업의 면접 또는 상담한 구직자 수는 총 1730 명으로 기업 평균 33.3 명으로 나타남.
- 이번 채용박람회를 통하여 채용을 결정하였거나 채용하고자 하는 구직자 수는 총 181 명으로 기업 평균 3.5 명이며, 민족별로 보면, 중국인(중국 동포 제외) 68.5%, 중국 동포 17.7%, 한국인 13.8%로 집계됨.

<민족 구분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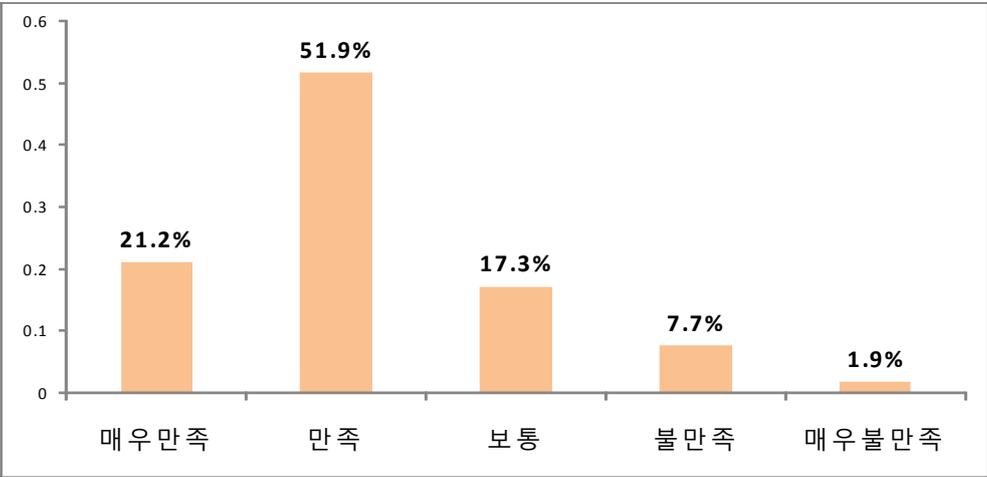


2 채용박람회에 대한 만족도와 향후 참가의사

□ 이번 채용박람회에 대한 만족도를 평가한 결과, 만족하거나 보통이 상으로 응답한 비중이 전체의 90.4%로 절대 다수였으며, 불만족으로 평가한 응답은 전체의 10%를 넘지 않았음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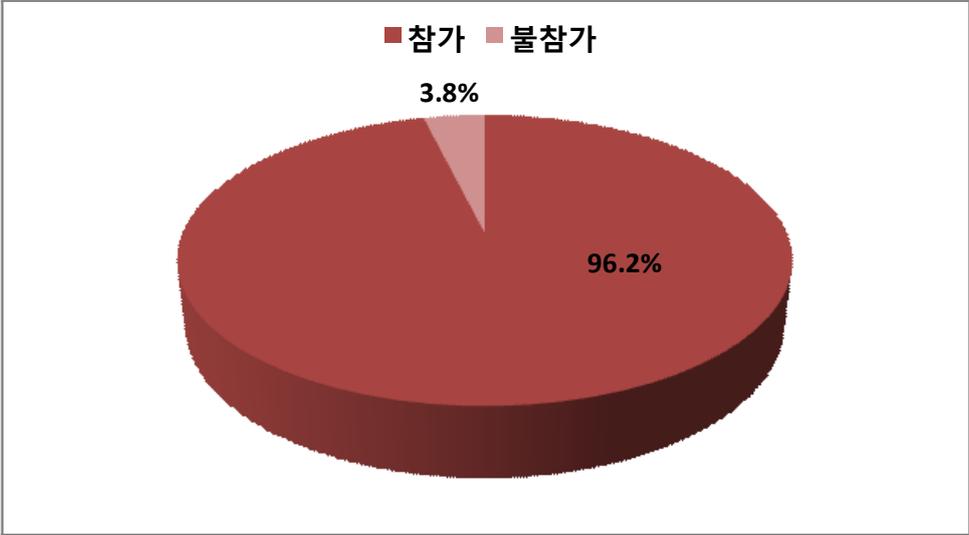
- 매우만족 21.2%, 만족 51.9%, 보통 17.3%, 불만족 7.7%, 매우불만족 1.9%

<만족도 평가>



□ 향후 채용박람회가 다시 개최될 경우 참가할 의사가 있는 기업은 96.2%, 불참가는 3.8%로 나타나 채용박람회에 대한 수요가 매우 높게 나타남.

<향후 박람회 참가의사>



3 향후 박람회 개최할 경우 가장 적당한 시기

- 향후 채용박람회의 가장 적당한 개최시기로는 1/4분기 36.5%, 2/4분기 19.2%, 3/4분기 15.4%, 4/4분기 13.5%, 상관없음 15.4%로 각각 나타남.
- 1/4분기 개최 선호도가 높은 것은 새해 업무 추진 및 춘절에 따른 인력 이동 등에 의한 인력난이 주요 요인

< 가장 적합한 개최시기 >

(%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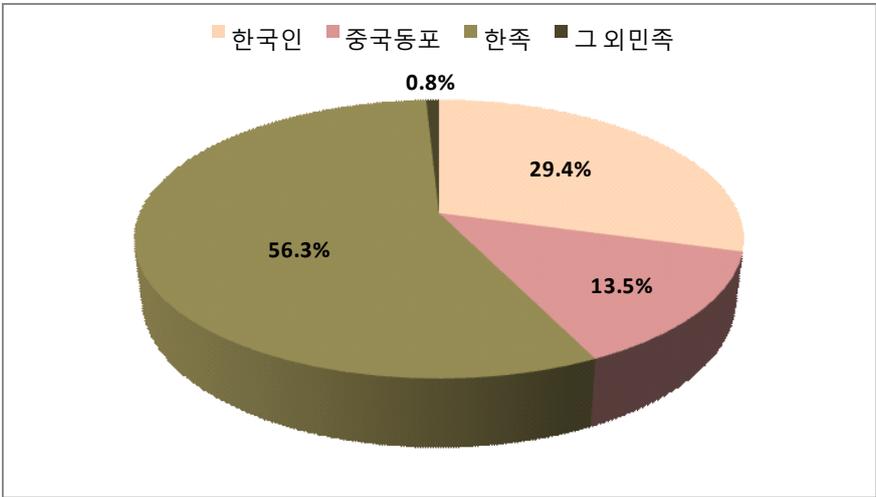
구 분	1/4분기	2/4분기	3/4분기	4/4분기	상관없음
가장 적합한 개최시기	36.5	19.2	15.4	13.5	15.4

【구직자】

4 민족 구분, 학력, 연령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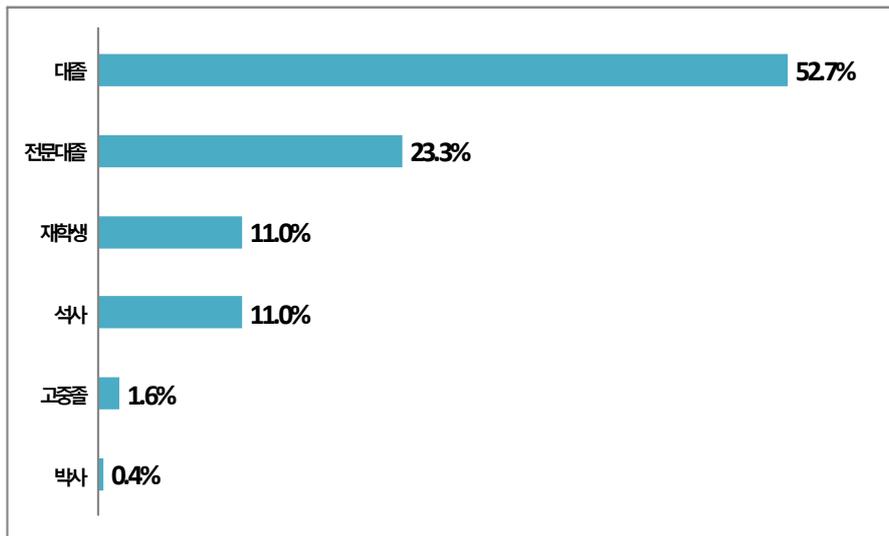
- 응답한 구직자의 민족 구분을 보면, 한족 56.3%, 한국인 29.4%, 중국 동포 13.5%, 기타 0.8%임.

<민족 구분>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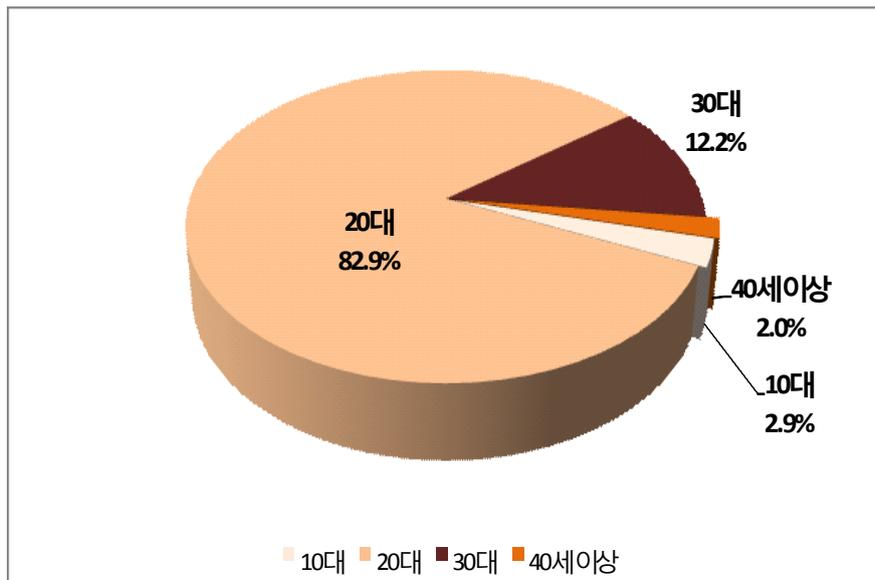
- 학력별로는 대졸 52.7%, 전문대졸 23.3%, 재학생 11.0%, 석사 11.0%, 고졸 1.6%, 박사 0.4%로 나타나, 대학이상이 98.4%로 대부분 고등학력의 우수 인력이 참가

<학력 구분>



- 연령별로는 20대 82.9%, 30대 12.2%, 10대 2.9%, 40대이상 2.0%로 나타나, 20대의 청년인력의 구직 수요가 매우 높은 것으로 분석됨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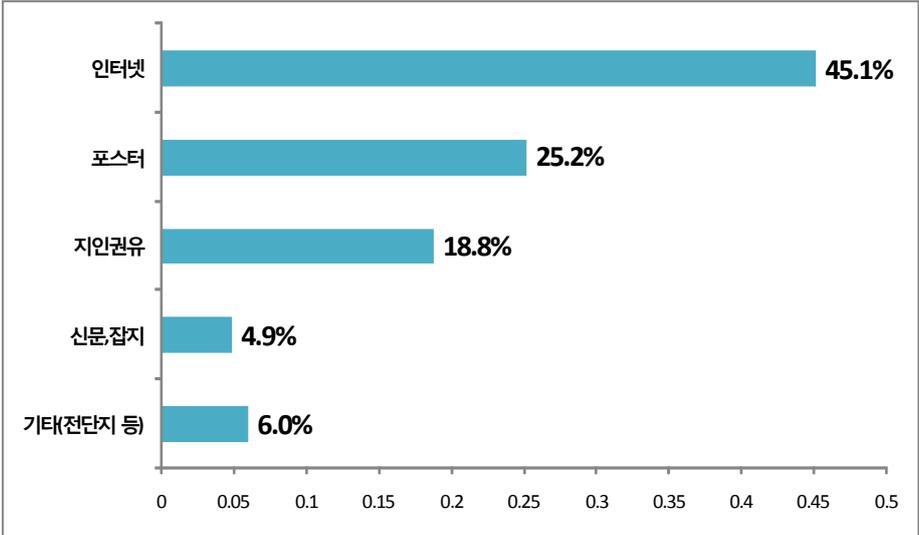
<연령 구분>



5 채용박람회 참가 경로

□ 채용박람회 참가경로는 인터넷 45.1%, 포스터 25.2%, 지인 권유 18.8%, 신문/잡지 4.9%, 기타(전단지 등) 6.0%로 집계되어, 인터넷 및 포스터 홍보 효과가 매우 큰 것으로 파악됨.

< 채용박람회 참가 경로 >



6 2012년도에 개최할 경우 가장 적합한 시기

□ 2012년도에 한국기업 채용박람회를 개최할 경우 가장 적합한 시기는 1/4분기 36.8%, 2/4분기 23.1%, 3/4분기 15.8%, 4/4분기 24.3%로 나타나, 춘절을 기회로 새로운 직장을 찾거나 졸업을 앞둔 청년인력의 구직 등으로 1/4분기 취직 수요가 많은 것으로 보임.

< 가장 적합한 개최시기 >

(%)

구 분	1/4분기	2/4분기	3/4분기	4/4분기
가장 적합한 개최시기	36.8	23.1	15.8	24.3

7 취업 희망하는 기업 규모

□ 취업을 희망하는 기업규모는 중견기업 32.1%, 대기업 27.9%, 중소기업 14.7%, 소규모 0.8%, 상관없음 24.5%로 응답하여, 중견기업 이상이 전체의 60%를 차지하였음.

< 취업 희망 기업규모 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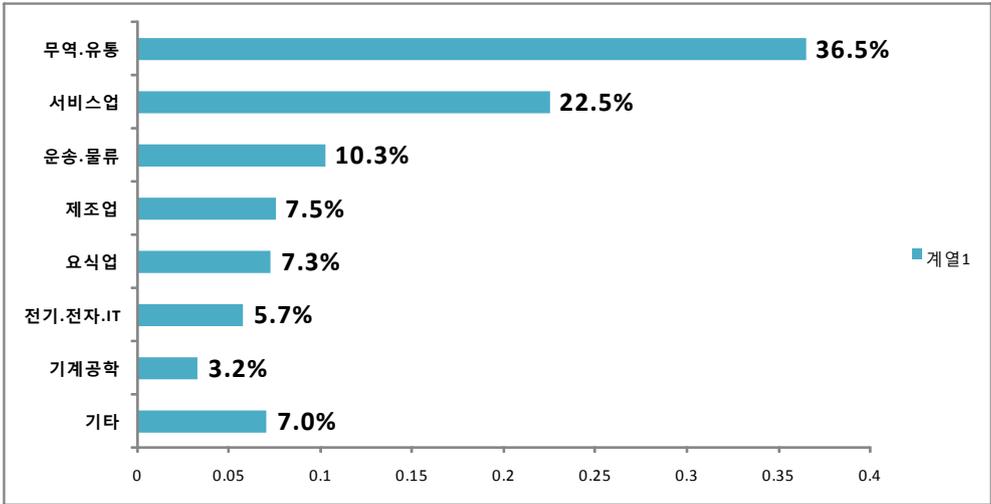
(%)

구 분	상관 없음	소규모 (20명이하)	중소기업 (21-100명)	중견기업 (101-500명)	대기업 (500명이상)
취직 희망 기업규모	24.5	0.8	14.7	32.1	27.9

8 취업 희망 직종 및 모집분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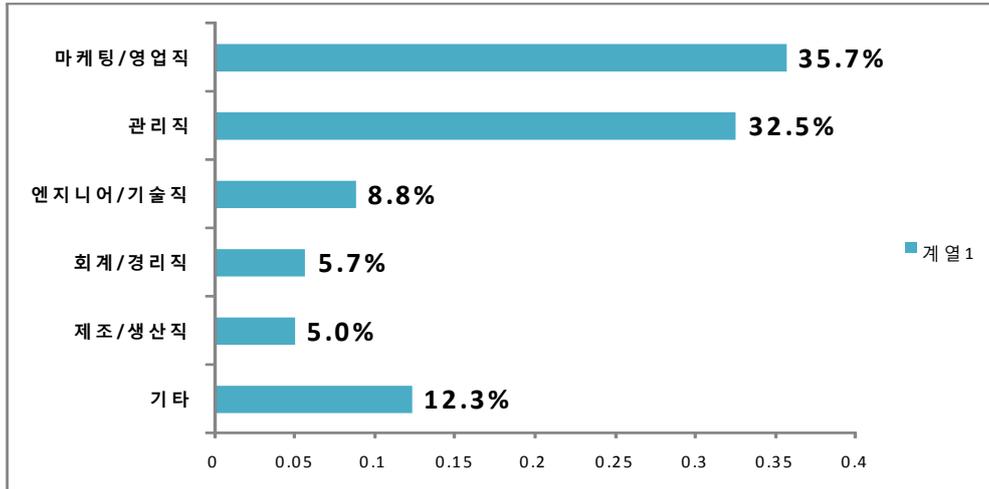
□ 취업 희망 직종별로는 무역/유통 36.5%, 서비스업(컨설팅, 통번역등) 22.5%, 운송/물류 10.3%, 제조업 7.5%, 요식업 7.3%, 기타 15.9% 순으로 나타나, 상하이 경제 발전의 주요 동력산업에 대한 취직 수요가 높게 나타남.

< 취업 희망 직종 >



- 취업 희망 모집분야는 마케팅/영업직 35.7%, 관리직 32.5%, 엔지니어/기술직 8.8%, 회계/경리직 5.7%, 제조/생산직 5.0%, 기타 12.3%로 나타나, 내수 진출을 위한 마케팅/영업 및 관리분야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임.

< 취직 희망 모집분야 >



9 한국기업에 취직할 경우 본인의 최대 강점

- 한국기업에 취직할 경우 본인의 가장 큰 장점으로 원활한 의사소통 42.7%, 통/번역 17.5%, 한국어 문서작성 14.9%, PC조작 14.6%, 기타 10.3%로 나타나, 참가한 구직자들이 한국어를 가장 중요한 경쟁요소로 지적했음.

< 한국기업 취직시 본인의 최대 강점 >

